

■ 고교유형별 진로선택과목 개설 현황 분석보도(2023.12.5)

# 자사고 절반 가량은 진로선택과목 개설 일반고에 못 미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사교육걱정’)은 전국·광역 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33개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되었던 일반고 141개 간의 진로선택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하였음.

▲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확대됨. 기존에 교육과정 다양화의 취지로 설립된 자사고와 일반고 간 진로선택과목 편성 현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자사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 실태 및 고교학점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함.

▲ 분석 결과, 진로선택과목 개수의 중앙값은 자사고 37개, 일반고 35개로 학교 유형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음. 특히 일반고 진로선택과목 개수의 중앙값에도 못 미치는 자사고가 무려 45.5%(15개교)에 달했음. 이는 고교교육 다양화를 위해 설립된 자사고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달성되지 못했음을 방증함.

▲ 이에 비해 일반고의 경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자사고에 못지 않은 진로선택과목 개설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시·도별로 59개~532개에 달하는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이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굳이 별도의 고교 유형을 두지 않더라도 일반고에서 충분히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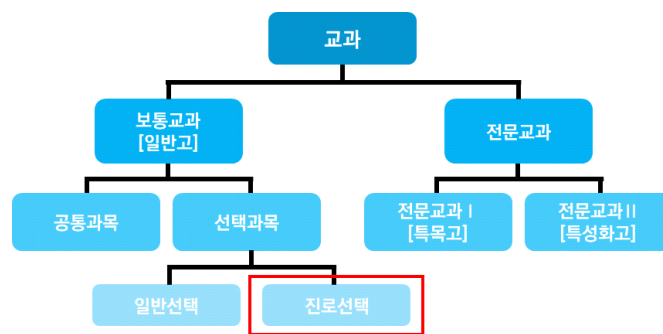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 3월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으나, 지난 10월 13일 이를 번복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와 학생 선발권 유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함.

▲ 이에 사교육걱정은 △고교교육 다양화를 명목으로 설립된 자사고 등의 학교유형을 존치하는 시행령 개정 개정 철회, △시행령 차원의 정책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

적인 고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인프라 확대를 강력히 촉구함.

2025학년도부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확대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도록 해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전국의 어느 고교에서나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과정(2015개정교육과정)은 물론이고 2025학년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핵심 중 하나인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과목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교과 체계 내에 ‘진로선택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림1] 2015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체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18학년도부터는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구/준비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전국의 모든 일반고가 준비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의 ‘진로선택과목’ 운영 현황을 살피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제대로 학교 현장에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위 학교에서 편성하는 진로선택과목의 양 자체가 교육과정의 질을 전적으로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하고 고려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로써 진로선택과목 편성 현황을 살피는 것은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모든 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및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충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연구학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및 소요 인프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요청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

선도학교(준비학교):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어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체 계획을 평가하여 지정·운영하는 학교

\*출처: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한편으로는 자사고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진로와 적성에 특화되거

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자사고라는 고교유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일반고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자사고 등과 같은 별도의 고교 유형을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바탕으로 이미 수년 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해본 자사고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일반고 간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비교해본다면, △자사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운영 실태가 어떠한지, △일반고에서도 자사고만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지 알아볼 수 있음은 물론, △자사고와 같은 별도의 고교 유형을 존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자사고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일반고 간의 진로선택과목 개수를 비교하여 그 편차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성과 발표(2020.1.13.)’에 고시된 1차(’18~’20), 2차(’19~’21), 3차(’20~’22) 연구학교 지정 목록과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고시된 2023년 연구학교 운영 목록을 참고하여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학교로 운영된 138개의 일반고를 조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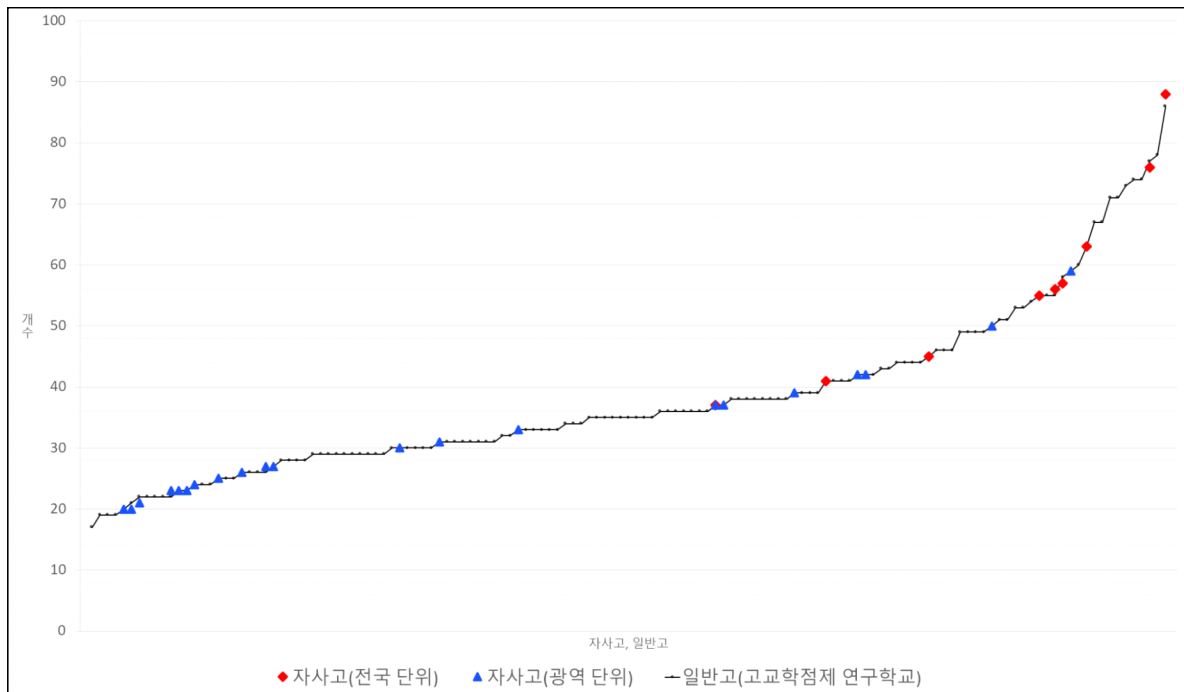
진로선택과목 개수는 학교 알리미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공시된 각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시 학교 알리미에 학교 교육과정을 게시하지 않은 3개 학교(김해여고, 국원고, 위례한빛고)은 제외하였고, 전국의 33개 자사고(전국 단위 10개+광역 단위 23개)을 더하여 총 171개의 학교를 조사하였습니다.

**[표1] 조사한 일반고(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자사고 목록**

	설립 유형	설립 구분	개수	학교명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일반고	일반고	국립	11	서울사대부고 한국교원대부고 경상사대부설고 부산대사범대부고 경북대사범대부고 전남사대부고 강원사대부고 충북사대부고 공주사대부고 경상국립사대부고 제주사대부고	
		공립	108	세현고 다사고 비슬고 선인고 제물포고 빚고을고 대전용산고 매곡고 화봉고 양지고 황지고 천안신당고 중마고 김해인호고 함안고 대정고 명호고 수성고 백석고 인천세원고 대전전민고 대전지족고 남목고 화암고 광남고 나무고 봉일천고 부명고 운천고 호평고 효양고 마차고 당진고 경북일고 영주여고 마산구암고 서귀포여고 잠일고 상인고 호산고 인천초은고 인화여고 대전복수고 화성여고 경기창조고 세종고 신장고 신천고 와부고 운암고 이산고 천천고 김화고 목포제일여고 군위고 사곡고 예천여고 마산여고 석관고 중경고 경남여고 부산강서고 주례여고 대전고 대구고 함지고 삼산고 학익고 운남고 풍암고 대덕고 대전가오고 신정고 사북고 장성여고 함백고 괴산고 진천고 충주여고 서전고 충북고 전주고 매성고 순천제일고 화순고 경주여고 상모고 성주고 안동여고 의성여고 고성중앙고 김해대청고 진양고 마산내서여고 창원용호고 진영고 창원대암고 불암고 갈매고 고색고 평택고 제천고 장흥고 당곡고 강진고 문현고 압구정고 연초고	
		사립	19	동북고 덕원고 대영고 배명고 한서고 부산동성고 서강고 논산대건고 부산동고 동대부속여고 상명고 우신고 청원고 동주여고 해운대여고 현풍고 대전성모여고 전주사대부고 장성고	
지율형사립 고등학교	지율고	사립	전국	10	광양제철고 김천고 민족사관고 북일고 상산고 안산동산고 용인의대부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광역	23	충남삼성고 인천하늘고 인천포스코고 휘문고 현대고 한양대사대부고 중앙고 중동고 이화여대사대부고(금란고) 이화여고 양정고 신일고 세화여고 세화고 선덕고 보인고 배재고 대광고 경희고 해운대고 대전대신고 대전대성고 계성고
합계			171		

또한 학교 유형별 진로선택과목 편성 개수를 비교할 때에는 중앙값을 산출하여 편차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대푯값을 산출할 때 자료의 값 가운데 매우 크거나 작은 값, 즉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통상 평균보다 중앙값(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자료 전체의 특징을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2] 일반고-자사고 간 진로선택과목 개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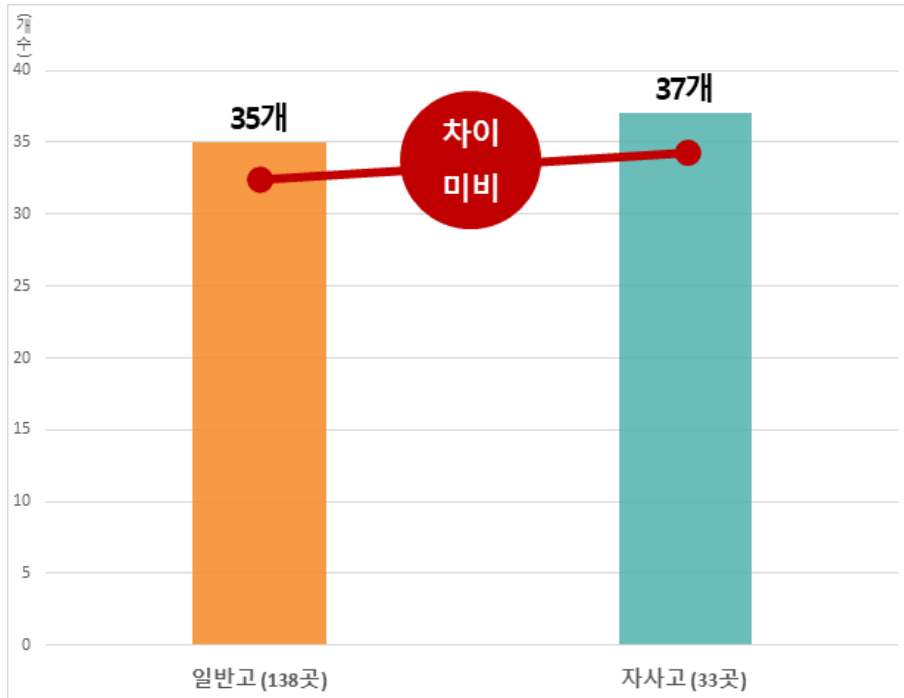
\*그래프 상에는 극단적인 값 (최고점(2개) 최저점(2개))을 제외하여 표시함.

분석 결과, 진로선택과목 개수의 중앙값은 자사고 37개, 일반고 35개로 자사고와 일반고 간 단 두 과목 밖에 차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3개 자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 학교(45.5%)는 진로선택과목 개수가 일반고 중앙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표2] 일반고-자사고 간 진로선택과목 개수 비교 결과

학교 유형	중앙값 (개)	평균 (극단적인 최고점, 최저점 2개 제외)
자사고 전체 (33개)	37	39
일반고 (138개)	35	38
개수 차이	1	1

[그림3] 일반고-자사고 간 진로선택과목 개수 차이



[표3]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일반고의 진로선택과목 개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 일반고 (138개 학교)											
학교명	개수	학교명	개수	학교명	개수	학교명	개수	학교명	개수	학교명	개수
경북대사범대부고	86	수성고	49	마산여고	39	경남여고	35	동대부속여고	31	합지고	26
명호고	78	이산고	49	제천고	39	풍암고	35	대전용산고	30	마산내서여고	26
주례여고	77	갈매고	49	세현고	38	신정고	35	중마고	30	상명고	26
동주여고	74	한국교원대부고	49	삼산고	38	당곡고	35	부명고	30	천안신당고	25
해운대여고	74	운천고	46	진양고	38	논산대건고	35	사곡고	30	매성고	25
서전고	73	신장고	46	경상사대부설고	38	제물포고	34	석관고	30	압구정고	25
선인고	71	덕원고	46	공주사대부고	38	예천여고	34	운남고	30	매곡고	24
부산대사범대부고	71	빛고을고	45	경상국립사대부고	38	중경고	34	효양고	29	당진고	24
화봉고	67	영주여고	44	배명고	38	대전지족고	33	마차고	29	대전복수고	24
부산강서고	67	학성여고	44	현풍고	38	대전가오고	33	장성여고	29	천천고	23
부산동고	63	대진고	44	진영고	37	괴산고	33	진천고	29	의성여고	23
인천초은고	60	성주고	44	청원고	37	창원용호고	33	충북고	29	세종고	22
대정고	59	충주여고	43	대전전민고	36	충북사대부고	33	순천제일고	29	김화고	22
남목고	58	서울사대부고	43	광남고	36	장성고	33	김해대청고	29	학익고	22
경북일고	55	경기장조고	42	서귀포여고	36	황지고	32	장흥고	29	불암고	22
부산동성고	55	운암고	42	대덕고	36	김해입호고	32	대영고	29	동북고	22
서강고	55	창원대암고	42	안동여고	36	함안고	31	대전성모여고	29	강원사대부고	21
다사고	54	비슬고	41	한서고	36	마산구암고	31	백석고	28	문현고	20
전주고	53	양지고	41	우신고	36	대구고	31	고성중앙고	28	잠일고	19
고색고	53	상인고	41	화암고	35	함백고	31	연초고	28	목포제일여고	19
호산고	51	경주여고	41	봉일천고	35	상모고	31	전주사대부고	28	사북고	19
인화여고	51	나루고	39	호평고	35	평택고	31	전남사대부고	27	화순고	17
인천세원고	50	와부고	39	신천고	35	제주사대부고	31	군위고	26	강진고	16

\*출처: 학교알리미

[표4] 자사고(전국단위, 광역단위)의 진로선택과목 개수

전국단위 자사고 (10개 학교)		광역단위 자사고 (23개 학교)	
학교명	개수	학교명	개수
민족사관고	132	충남삼성고	169
하나고	88	대광고	59
용인의대부고	76	인천포스코고	50
광양제철고	63	대전대신고	42
상산고	57	대전대성고	42
포항제철고	56	이화여고	39
북일고	55	선덕고	37
안산동산고	45	계성고	37
김천고	41	세화여고	33
현대청운고	37	인천하늘고	31
		배재고	30
		보인고	27
		경희고	27
		신일고	26
		휘문고	25
		해운대고	24
		한양대사대부고	23
		중앙고	23
		이화여대사대부고(금란고)	23
		현대고	21
		양정고	20
		세화고	20
		중동고	17

\*출처: 학교알리미

교육부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명목으로 자사고를 설립하고 존치하였지만, 정작 일반고의 진로선택과목 개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명목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이유를 무색하게 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굳이 자사고 등과 같은 고교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인수과목이나 교사수급이 어려운 과목의 경우 단위 학교에서 수업 개설이 어려웠던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공동교육과정 인프라가 탄탄하게 갖추어져 왔습니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일반고의 경우에도 자사고에 못지 않은 진로선택과목 개설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시,도별로 59~532개에 달하는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별도의 고교 유형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개별 학교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과목 선택권이 확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5] 시·도교육청별 공동교육과정 개설 강좌 개수

시·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명	기준	유형	강좌 개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콜라캠퍼스)	2023년 2학기	거점형 선택교육과정	91
			공유형 선택교육과정 (공유캠퍼스)	3
경기도교육청	경기고교학점제-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오프라인	207
			온라인	325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오프라인	107
			온라인	36
인천광역시교육청	꿈두레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거점형	195
			밴드형	50
			온라인형	1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42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22
대전광역시교육청	너두나두 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오프라인	41
			온라인	66
			진로선택형	105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우리아이 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오프라인 공동	69
			온라인 공동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공동교육과정 I·III	43
			공동교육과정II	123
			공동교육과정V	17
강원도교육청	꿈 더하기 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61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64
충청북도교육청	공동 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정규교육과정-학교간	185
			정규교육과정-지역연합	50
충청남도교육청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정규교육과정	182
			꿈키움과정	88
전라북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오프라인	85
			온라인	23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꿈키움캠퍼스	4
			온라인	55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간 어울림 공동 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오프라인 공동	211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113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참 공동교육과정	2023년 1학기 (*2학기 미고사)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97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4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2023년 동계방학 (*1,2학기 미고사)	고교 서머/윈터스쿨	8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2023년 2학기	오프라인	54
			온라인	33

\*출처: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교육부가 ‘2022년도 고교학점제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자료집(2023)’에서 발표한 우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사례 중 ‘개인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특성화’의 우수 사례로 꼽힌 학교들의 진로선택과목 개수는 호산고 51개, 서강고 55개, 남목고 58개, 다사고 54개로 나타났습니다. 주문형 강좌나 학교 밖 교육과정을 운영한 광남고, 수업 유연화 주간에 교과 간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한 호산고 등 학교별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들은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후 자사고 등과 같이 별도의 고교 유형을 두지 않더라도 일반고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진로선택과목을 마련하고, 다채롭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방증합니다.

2022개정교육과정에서도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하겠다며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활동 편성운영, 학교 자율적으로 지역 연계 선택과목 개발 활용, 교과 교육과정에 담당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림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가 분권화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

-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 혁신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 국가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간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지원** 방안 모색

<b>국가 교육과정</b>	▶ 초·중등학교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국 공통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
<b>지역 교육과정</b>	▶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등이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
<b>학교 교육과정</b>	▶ 국가와 지역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의 관심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

-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학교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에서 시수 증감 가능**하도록 개선
  - ※ (현행) 교과(군)별 20%내 시수증감 → (개선)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20%내 시수증감
- 초·중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총론 편성·운영지침을 개선**하여 운영 근거 마련
  - 학교 자율시간 확보를 통해 다양한 학교장 개설과목 신설, 지역 연계 특색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등 운영

이렇듯 고교학점제 이후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하였던 자사고 등의 고교 유형을 존치하기로 교육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10년 가량의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교학점제 시대를 맞아 새로이 수평적 고교체제 속에서 교육과정 다양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고교서열화 문제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고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2019년 11월,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성적·입시 중심의 학교운영 등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중학교 단계에서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과열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발'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학교를 유형화하고,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먼저 선발해 입시 위주 교육을 더 부추기는 서열화 교육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2025년도에 모든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사고·외고 등에서 운영한 특별한 교육과정도 일반고에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림5]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19)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3)

**IV. 추진내용**

**1 고교유형 단순화 추진**

- ◆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5년 3월 일괄 일반고 전환, 학교명칭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
- ◆ '20년 이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모집 특례 폐지 및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 개선

**1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19.하-)을 통해 '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
- \* 법령 개정 시, 자공고도 동일한 일정·방식으로 전환 추진
-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며, 일괄 전환 전 입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 유지

< 참고 : 고교유형 단순화(안) >

2025년 3월 이전		2025년 3월 이후	
일반고		일반고	
자율고	자사고 자공고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티고		
특성화고	과학고		
영재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티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영재학교	

- '20년~'24년까지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통합전형 선발·법정부담금 납입 등 책무사항 지도·감독 강화
- '25년 이후 전환한 학교는 현재 일반고와 동일하게 선발방식(명준화 : 교육감 배정, 비평준화 : 학교장 선발)이 변경되고, 무상교육 지원

**2. 주요내용**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유형 도입 (안 제76조의3 개정,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91조의3 신설)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추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 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 2) 자사고 등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최대 50%를 일반전형으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19)'을 발표하며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5년 3월 일괄 일반고 전환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3일,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고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매번 정권에 따라 반복되는 교육정책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차원의 교육정책을 넘어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교육부는 정책 취지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사고와 같은 수직 서열화된 체제를 종식하고, 일반고 체제에서 모든 학교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모색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거듭 촉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교서열화 해소는 물론이고 모든 고교에서 모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고교유형을 일반고로 통합하는 법 제정에 국회와 교육당국이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12. 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이현우(02-797-4044/내선번호 502)